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오늘의 정확한 기록은 내일이면 역사가 된다

김달진

1955년 충북 옥천 출생.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문화부장관표창, 문광부장관표창, 월간미술특별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 수상

월간전시세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역임

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및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저서로는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미술전시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공저)』 등

지난 2월 24일 금요일, 서울 창전동에 있는 한국미술정보센터를 찾았다.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미술자료전문가로 알려진 김달진. 서울아트가이드 10주년을 맞아 그를 만나서 자료에 관한 이야기와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Q. 미술자료 수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꼼꼼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모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우표, 상표, 담배 갑 등 잡다한 물건들을 수집하다가 서양 명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명화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근대미술 60년을 되돌아보는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이 경복궁 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시를 보면서 많이 알려진 작가들은 자료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양의 명화만 모을 것이 아니라 국내 작가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Q.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료실과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에서 근무하셨을 때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981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경성 선생님께서 관장으로 계실 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경성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임시직 공무원으로 일당 4,500원씩 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사실 자료실이 없었고 큐레이터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전문위원으로 오광수 선생님께서 미술평론가로서 자문역할과 큐레이터 역할을 하셨죠. 그 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옮기면서 자료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인사동으로 출장을 가서 개인전, 단체전의 팸플릿 등을 나름대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수집해나갔습니다. 당시 안타까웠던 점은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놀러 나간다는 식으로 인식했었는데, 이경성 관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그나마 업무에 지장이 없었어요. 또, 일하는 만큼 직급 상에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불만이 쌓여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일은 아들이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때 월간미술, 가나아트 등에 여러 차례 외부기고를 하

던 중, 가나아트 이호재 사장의 권유로 눈물을 머금고 가나아트에 자료실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후로 가나아트에서 5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한 뒤, '김달진미술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서울아트가이드라는 12쪽짜리 접지를 만들면서 지금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Q. 자료수집과 기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미술 자료는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역미술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시며, 지역미술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역미술에 대한 자료수집을 할 때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2종 정도 중요한 지방지를 아침에 프린트해서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전시한 자료들은 우편으로 받고 있어요. 사실 한국미술이 서울중심으로 돌아가는 실정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역시도 모든 지역미술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가 큰 모체가 되어 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현대미술의 역사를 수집해서 남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 부분은 누락이 됩니다. 예컨대 어느 지방의 다방에서 했던 전시가 있어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수집할 수가 없죠. 결국은 각 지역에서 중요한 기관들이 인식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중앙이나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Q. 자료를 수집하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알려지고 수정되는지?

최근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연구용역으로 미술저작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마쳤습니다. 같은 작가인데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있고 오기된 부분을 지속해서 수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에서 1958년도 미국 신시내티 미술관의 제5회 국제현대색채선판화비엔날레 展에 한국작가들이 출품하였는데, 김홍수 작가는 참여했다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당시에 김홍수 작가가 파리에 거주하면서 작품을 출품했다는 기록을 찾아내어 수정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든 노력이 역사의 올바른 기초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공공기관의 자료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나 조언을 하신다면?

사실 예산책정부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이 전시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산이 많지만, 인프라나 기초를 닦는 일은 예산지원이 빈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이종성, 박수

근과 같은 유명작가들만 수집할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작가들에 대한 자료수집도 함께해야 합니다. 일등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등별, 삼등별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미술자료들이 한국미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 자산이 되려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과 정책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최근 진화랑에서 '아름다운 인연'展이라는 전시를 통해 후원회 기금특별마련전이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립박물관이지만 다른 사립박물관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담보로 합니다. 후원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여태까지 한 개인이 해왔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신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2009년에 후원회를 결성하고 힘을 많이 실어주시거죠. 자료구입을 하는 부분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금마련을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인연전이 열린 것이죠. 전시는 작가가 순수하게 작품을 기증해주신 분도 계시고 협찬, 출품 해주신 작품들이 전부입니다. 현재 미술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전시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Q. 자료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극복하는 선생님의 비결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라.”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만 늘 쫓아가면 자기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 일에 미쳐야 하고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자기만족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 역할을 하고 의미를 찾고자 노력할 때 아름다운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아트가이드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는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 수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으려고 지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아트가이드의 지속적인 발행을 하면서 이번에 달진닷컴을 새롭게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바뀌지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미약했던 검색 부분은 종합포털사이트의 검색처럼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달진닷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는 외국미술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되고 비쳤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